

대졸자의 일자리 이동 유형 분류 및 비교

천영민¹ · 이성재²

¹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지원TF, ²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

(2009년 12월 접수, 2010년 2월 채택)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구직 및 이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쌓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자리 경험 횟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일자리 경험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한 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였다.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른 최종일자리 월평균임금 차이 분석과 동일한 일자리 횟수에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조사된 GOMS 1차년도 자료와 2007년에 조사된 GOMS 2차년도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용어: 월평균임금,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이동.

1. 서론

2008년 후반기에 국내에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몰려왔다. IMF 경제위기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 경제위기가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상당 기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각종 고용관련 지표들 역시 불안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인턴과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등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취업을 앞둔 청년층 일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이익을 왜 우리가 떠맡아야 하는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실행중인 고용관련 정책들이 초단기성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더 큰 우려는 일부 기업에서 이런 정책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규 취업자에게 고통분담을 일괄적으로 떠넘기는 현상들보다는 재직중인 취업자들의 고통분담 차원이 더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대학 졸업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고교 졸업자 10명 중 8명 내지 9명 정도는 대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생대가 많은 국내 취업시장에서 대학의 역할중의 하나는 졸업자들을 취업시키는 것이며,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중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진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을 하게 되는데, 구직을 위한 자격 취득 및 직업훈련 이수, 시험을 통한 취업 그리고 전직 및 이직을 통한 일자리 이동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청년층 일자리 이동에 대한 기존연구는 천영민 등 (2008b)의 2장 부분에 있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천영민 등 (2008b)은 GOMS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이동 경험이 없는 대졸자들이 일자리 이동 경험이 있는 대졸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졸자 직업이동

¹교신저자: (150-09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11,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지원TF, 연구위원.

E-mail: zzari90@keis.or.kr

표 2.1. 층화요인별 자료 구성

구 분	학교 유형						전 체		
	전문대		4년제		교육대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전 체	228,282	45.4	268,805	53.5	5,595	1.1	502,682	100.0	
전공 계열	인문계열	12,159	5.3	39,244	14.6	-	-	51,403	10.2
	사회계열	54,552	23.9	69,912	26.0	-	-	124,464	24.8
	교육계열	10,226	4.5	14,632	5.4	5,595	100.0	30,453	6.1
	공학계열	74,349	32.6	69,419	25.8	-	-	143,768	28.6
	자연계열	17,177	7.5	36,441	13.6	-	-	53,618	10.7
	의약계열	21,515	9.4	12,466	4.6	-	-	33,981	6.8
	예체능계열	38,304	16.8	26,691	9.9	-	-	64,995	12.9
권역	서울권	18,807	8.2	69,889	26.0	599	10.7	89,295	17.8
	경기권	79,008	34.6	49,187	18.3	1,254	22.4	129,449	25.7
	충청권	26,301	11.5	44,717	16.6	1,048	18.7	72,066	14.3
	경상권	69,373	30.4	70,334	26.2	1,681	30.0	141,388	28.1
	전라권	34,793	15.2	34,678	12.9	1,013	18.1	70,484	14.0
성별	남성	106,061	46.5	136,565	50.8	1,415	25.3	244,041	48.5
	여성	122,221	53.5	132,240	49.2	4,180	74.7	258,641	51.5

경로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년 대졸자들은 졸업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약 1.4회 정도의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이동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기업규모가 큰 사업체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대졸자 남성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이동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라 유형을 다양하게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른 최종일자리의 월평균임금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청년층과 관련한 일자리 이동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인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의 소개와 분석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본 연구의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2. 자료 소개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수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표본설계 시 층화요인으로 고려한 학교유형, 지역, 전공계열, 성별 등을 가중값으로 부여하여 추정된 값을 사용하였다(천영민 등, 2008a, 2009). 따라서 일부 분석 자료에서 가중값 부여로 인한 합의 불일치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표 2.1은 네 개 층화요인별 자료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총 졸업자수는 502,764명이었는데 2차년도 조사 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망자를 반영한 총 졸업자수는 502,682명이다.

일자리 경험 횟수를 1회에서 5회 이상까지로 세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경험횟수에 포함되는 일자리 이동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경험횟수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이 분석, 일자리 경험횟수 1회와 2회의 경우에 한해, 일자리 이동 유형에 따른 월평균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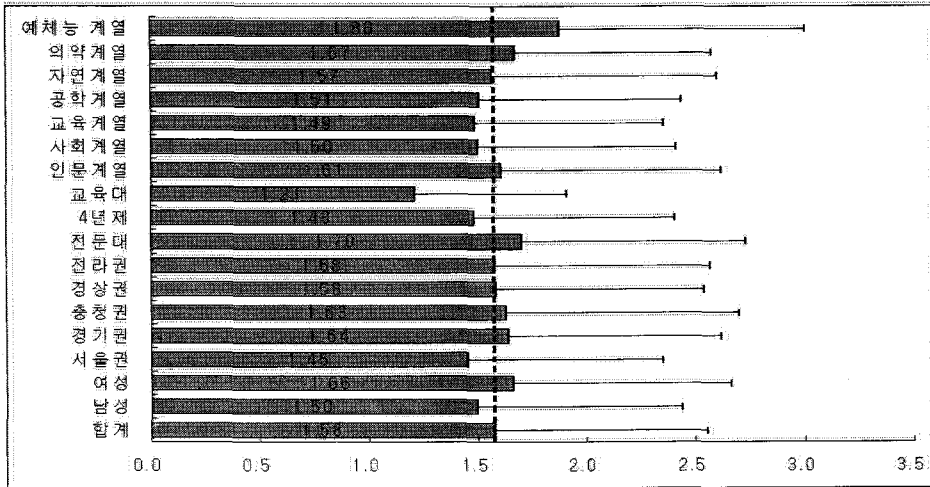


그림 3.1. 평균 일자리 경험횟수 비교

금 차이 분석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실시된 GOMS 1차년도 자료와 2007년에 실시된 GOMS 2차년도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

3.1절의 일자리 경험횟수는 모집단 총량 추정을 위해 원자료에 가중값을 부여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3.2의 일자리 경험 유형 분류와 3.3의 평균 차이 분석은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1. 일자리 경험 횟수

2005년 대졸자들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은 이후부터 졸업 후 32개월 경과시점까지 갖게 되는 평균 일자리 개수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5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영민 등 (2008b)에 의하면 졸업 후 20개월 경과시점에서 대졸자들이 경험한 평균 일자리 개수는 1.40개였는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0.18개 정도가 증가한 셈이다. 천영민 등 (2008b)에서는 주요 변수 중에서 권역 변수 대신에 수도권 여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문대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졸자가, 예체능 계열이 상대적으로 평균 일자리 경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천영민 등 (2008b)의 연구에 비해 약 1년 시점이 경과한 후에 분석한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평균만 증가했을 뿐 주요변수별 현황은 천영민 등 (2008b)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일자리 경험횟수를 살펴보면, 이병희 (2002)는 2000년에 15~2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서 약 2.1회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NLSY에서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경험횟수를 조사한 연구에서, Light와 McGarry (1998)는 3.9회, Neal (1999)은 3.2회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천영민 등 (2008b)에서는 1.4회이었는데, 그의 연구에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통한 일자리 경험 횟수가 다른 연구에 비해 적은 이유는 대학 졸업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조사했기 때문에 일자리 이동의 변화가 점차 안정적으로 변하는 상태를 아직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추후 계속되는 조사 자료를 통해 증가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3.1. 일자리 경험횟수에 따른 이동 유형

직장경험 횟수	1차 조사		2차 조사			인원(명)
	현재 일 여부	일자리 횟수	지난일 계속 여부	현재 일 여부	새로운 일자리 횟수	
0회	X	0	X	X	0	25,145
1회	X	0	X	○	1	20,538
	X	0	X	X	1	2,383
	○	1	○	-	0	210,820
	○	1	X	X	0	16,785
	X	1	X	X	0	14,585
2회	X	0	X	○	2	1,531
	X	0	X	X	2	259
	○	1	X	○	1	38,689
	○	1	X	X	1	1,697
	X	1	X	○	1	16,156
	X	1	X	X	1	2,648
	○	2	○	-	0	62,808
	○	2	X	X	0	8,557
	X	2	X	X	0	2,969
3회	X	0	X	○	3	23
	X	0	X	X	3	0
	○	1	X	○	2	2,760
	○	1	X	X	2	150
	X	1	X	○	2	2,836
	X	1	X	X	2	275
	○	2	X	○	1	25,604
	○	2	X	X	1	992
	X	2	X	○	1	4,439
	X	2	X	X	1	940
	○	3	○	-	0	12,640
	○	3	X	X	0	2,234
X	3	X	X	0	718	
4회	X	0	X	○	4	59
	X	0	X	X	4	0
	○	1	X	○	3	225
	○	1	X	X	3	8
	X	1	X	○	3	156
	X	1	X	X	3	16
	○	2	X	○	2	1,727
	○	2	X	X	2	137
	X	2	X	○	2	870
	X	2	X	X	2	99
	○	3	X	○	1	7,704
	○	3	X	X	1	369
	X	3	X	○	1	1,532
	X	3	X	X	1	293
	○	4	○	-	0	2,165
○	4	X	X	0	426	
X	4	X	X	0	158	
5회 이상	-	-	-	-	-	5,695
계						500,820

표 3.1은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른 이동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2006년 1차 조사 당시까지 경험한 일자리 횟수와 2007년 2차 조사에서 추가로 파악한 일자리 경험횟수를 통해 총 일자리 경험횟수를 파악했다. 표 3.2는 학교유형 및 성별에 따른 일자리 경험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교육대 졸업자는 일자리 무경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 후 모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회 경험자는 교육대

표 3.2. 학교유형 및 성별 일자리 경험횟수 분포 현황

	일자리 무경험자(N)	1회 경험자 (A)	2회 경험자 (B)	3회 경험자 (C)	4회 경험자 (D)	5회 이상 경험자(E)	합 계	
전문대	전체	8,034 (3.5)	112,093 (49.1)	65,673 (28.8)	29,445 (12.9)	9,698 (4.2)	3,339 (1.5)	228,282 (100.0)
	남성	3,395 (3.2)	57,218 (53.9)	27,736 (26.2)	12,182 (11.5)	4,050 (3.8)	1,480 (1.4)	106,061 (100.0)
	여성	4,639 (3.8)	54,875 (44.9)	37,937 (31.0)	17,263 (14.1)	5,648 (4.6)	1,859 (1.5)	122,221 (100.0)
4년제	전체	17,111 (6.4)	148,183 (55.1)	70,345 (26.2)	24,501 (9.1)	6,350 (2.4)	2,316 (0.9)	268,806 (100.0)
	남성	8,765 (6.4)	82,435 (60.4)	32,826 (24.0)	9,218 (6.7)	2,471 (1.8)	850 (0.6)	136,565 (100.0)
	여성	8,346 (6.3)	65,748 (49.7)	37,519 (28.4)	15,283 (11.6)	3,879 (2.9)	1,466 (1.1)	132,241 (100.0)
교육대	전체		4,836 (86.4)	550 (9.8)	109 (1.9)	60 (1.1)	41 (0.7)	5,596 (100.0)
	남성		1,125 (79.5)	193 (13.6)	44 (3.1)	45 (3.2)	8 (0.6)	1,415 (100.0)
	여성		3,711 (88.8)	357 (8.5)	65 (1.6)	15 (0.4)	33 (0.8)	4,181 (100.0)
전체	25,145 (5.0)	265,112 (52.7)	136,568 (27.2)	54,055 (10.8)	16,108 (3.2)	5,696 (1.1)	502,684 (100.0)	

가 86.4%로 가장 높고, 4년제가 55.1%로 전문대(49.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를 제외하고, 4년제 남성이 6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천영민 등 (2008b)에서 4년제 대출 남성의 일자리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대 여성과 4년제 여성은 일자리 1회 경험자가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44.9%와 49.7%로 나타나, 남성들에 비해 이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은 학교유형 및 권역별에 따른 일자리 경험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일자리 1회 경험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문대의 경우, 전라권(53.8%), 4년제의 경우, 서울권(58.7%)이었다. 지역별로 일자리 경험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출신대학 소재지의 직접적인 연관 보다는 각 지역별 주요 산업 및 직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 많이 분포한 산업과 직업으로 인해 개설된 전공과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천영민 등 (2008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출신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사업체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각 지역별 직업 및 산업의 특성이 이직횟수에 차이가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4는 학교유형 및 전공계열에 따른 일자리 경험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일자리 1회 경험 비율의 경우, 전문대는 사회계열이 54.7%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이 52.7%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이 38.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의 경우, 공학계열이 62.9%로 가장 높고, 의약계열이 57.8%로 그 다음이었으며, 역시 예체능 계열이 42.7%로 가장 낮았다.

3.2. 일자리 경험 유형 분류

그림 3.2는 표 3.1에 있는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른 유형에 대해, 일자리 경험이 한 번 있었던 대출자를 유형별로 도식화 한 것이다.

표 3.3. 학교유형 및 권역별 일자리 경험횟수 분포 현황

	일자리 무경험자(N)	1회 경험자 (A)	2회 경험자 (B)	3회 경험자 (C)	4회 경험자 (D)	5회 이상 경험자(E)	합 계	
전문대	전체	8,035 (3.5)	112,093 (49.1)	65,673 (28.8)	29,445 (12.9)	9,698 (4.2)	3,339 (1.5)	228,283 (100.0)
	서울권	638 (3.4)	9,786 (52.0)	5,260 (28.0)	2,315 (12.3)	629 (3.3)	179 (1.0)	18,807 (100.0)
	경기권	2,598 (3.3)	37,176 (47.1)	23,894 (30.2)	10,708 (13.6)	3,480 (4.4)	1,152 (1.5)	79,008 (100.0)
	충청권	954 (3.6)	12,612 (48.0)	7,620 (29.0)	3,189 (12.1)	1,455 (5.5)	471 (1.8)	26,301 (100.0)
	경상권	2,510 (3.6)	33,810 (48.7)	20,381 (29.4)	9,086 (13.1)	2,626 (3.8)	962 (1.4)	69,375 (100.0)
	전라권	1,335 (3.8)	18,709 (53.8)	8,518 (24.5)	4,147 (11.9)	1,508 (4.3)	575 (1.7)	34,792 (100.0)
4년제	전체	17,111 (6.4)	148,184 (55.1)	70,345 (26.2)	24,500 (9.1)	6,350 (2.4)	2,315 (0.9)	268,805 (100.0)
	서울권	4,911 (7.0)	40,994 (58.7)	16,958 (24.3)	5,035 (7.2)	1,365 (2.0)	627 (0.9)	69,890 (100.0)
	경기권	2,691 (5.5)	27,495 (55.9)	12,669 (25.8)	4,898 (10.0)	1,088 (2.2)	346 (0.7)	49,187 (100.0)
	충청권	2,469 (5.5)	23,810 (53.2)	11,750 (26.3)	4,875 (10.9)	1,396 (3.1)	416 (0.9)	44,716 (100.0)
	경상권	4,787 (6.8)	37,572 (53.4)	19,407 (27.6)	6,511 (9.3)	1,513 (2.2)	544 (0.8)	70,334 (100.0)
	전라권	2,253 (6.5)	18,313 (52.8)	9,561 (27.6)	3,181 (9.2)	988 (2.8)	382 (1.1)	34,678 (100.0)

A1은 졸업 후 2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첫 일자리를 구한 후 3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하여 일자리를 구했거나,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의 합격 등을 통해 늦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일 것으로 추측된다. A2는 졸업 후 2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첫 일자리를 구했으나, 그 후 1년 이내에 그 일자리를 그만 두어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A3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3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이다. A4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다녔으나, 그 이후에 그만 두어서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A5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어서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A1과 A3는 일자리 1회 경험자 중에서 현재 일자리 보유자, A2, A4, A5는 현재 일자리 미보유자로 일부는 이직준비 상태이고, 일부는 구직을 단념한 상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1은 일반 기업체에 입사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유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A3는 대학원 진학 및 공무원 시험 합격 등을 포함한 장기취업 준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A2와 A4는 이직 준비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A5는 구직 단념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졸업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1차 조사 당시에 지난 1주일간 무엇을 하였는지를 파악한 결과를 표 3.5에 나타내었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A1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 통학 비율이 절반을 넘는 57.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 학교유형 및 전공계열별 일자리 경험횟수 분포 현황

	일자리 무경험자(N)	1회 경험자 (A)	2회 경험자 (B)	3회 경험자 (C)	4회 경험자 (D)	5회 이상 경험자(E)	합 계		
전문대	전체	8,034 (3.5)	112,093 (49.1)	65,673 (28.8)	29,445 (12.9)	9,697 (4.2)	3,340 (1.5)	228,282 (100.0)	
	인문	495 (4.1)	5,745 (47.2)	3,387 (27.9)	1,713 (14.1)	519 (4.3)	300 (2.5)	12,159 (100.0)	
	사회	2,380 (4.4)	29,852 (54.7)	14,527 (26.6)	5,412 (9.9)	1,750 (3.2)	631 (1.2)	54,552 (100.0)	
	교육	280 (2.7)	4,951 (48.4)	3,659 (35.8)	1,141 (11.2)	167 (1.6)	28 (0.3)	10,226 (100.0)	
	공학	2,116 (2.8)	39,150 (52.7)	20,185 (27.1)	9,000 (12.1)	2,973 (4.0)	925 (1.2)	74,349 (100.0)	
	자연	799 (4.7)	7,535 (43.9)	4,588 (26.7)	2,782 (16.2)	1,158 (6.7)	314 (1.8)	17,176 (100.0)	
	의약	367 (1.7)	10,065 (46.8)	7,015 (32.6)	3,121 (14.5)	809 (3.8)	138 (0.6)	21,515 (100.0)	
	예체능	1,597 (4.2)	14,795 (38.6)	12,312 (32.1)	6,276 (16.4)	2,321 (6.1)	1,004 (2.6)	38,305 (100.0)	
	4년제	전체	17,111 (6.4)	148,182 (55.1)	70,344 (26.2)	24,500 (9.1)	6,350 (2.4)	2,315 (0.9)	268,802 (100.0)
		인문	3,100 (7.9)	19,059 (48.6)	10,698 (27.3)	4,899 (12.5)	1,118 (2.8)	369 (0.9)	39,243 (100.0)
사회		4,037 (5.8)	39,775 (56.9)	18,380 (26.3)	5,934 (8.5)	1,371 (2.0)	415 (0.6)	69,912 (100.0)	
교육		883 (6.0)	8,143 (55.7)	3,637 (24.9)	1,294 (8.8)	535 (3.7)	140 (1.0)	14,632 (100.0)	
공학		4,346 (6.3)	43,636 (62.9)	16,188 (23.3)	4,132 (6.0)	879 (1.3)	238 (0.3)	69,419 (100.0)	
자연		3,763 (10.3)	18,966 (52.0)	8,976 (24.6)	3,680 (10.1)	731 (2.0)	325 (0.9)	36,441 (100.0)	
의약		190 (1.5)	7,200 (57.8)	3,469 (27.8)	1,135 (9.1)	321 (2.6)	150 (1.2)	12,465 (100.0)	
예체능		792 (3.0)	11,403 (42.7)	8,996 (33.7)	3,426 (12.8)	1,395 (5.2)	678 (2.5)	26,6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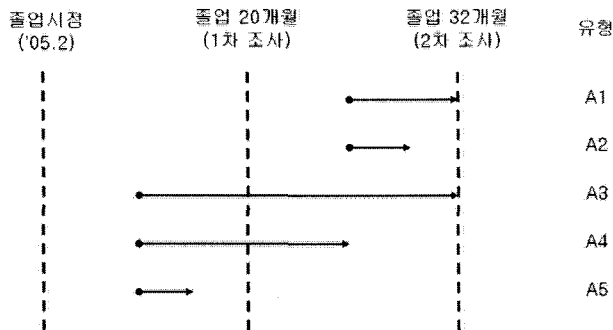


그림 3.2. 일자리 1회 경험자의 유형 분류

표 3.5. 1차 조사 당시 지난 1주간 한 일

유형	A1	A2	A3	A4	A5
지난 1주간 한 일					
일하였음			10,210 (97.6)	677 (87.4)	
일시휴직	7 (0.7)		31 (0.3)	8 (1.0)	16 (2.5)
구직활동	35 (3.4)	3 (2.8)	2 (0.0)	1 (0.1)	34 (5.3)
발령대기	42 (4.1)		2 (0.0)	1 (0.1)	1 (0.2)
육아	10 (1.0)	2 (1.9)	6 (0.1)	4 (0.5)	46 (7.2)
가사	7 (0.7)	2 (1.9)	2 (0.0)		55 (8.6)
대학 또는 대학원 통학	593 (57.7)	43 (39.8)	153 (1.5)	63 (8.1)	140 (21.9)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57 (5.6)	15 (13.9)	4 (0.0)	10 (1.3)	67 (10.5)
취업준비	204 (19.9)	32 (29.6)	13 (0.1)	4 (0.5)	178 (27.9)
진학준비	15 (1.5)	3 (2.8)	6 (0.1)	5 (0.6)	32 (5.0)
심신장애	2 (0.2)		1 (0.0)		2 (0.3)
군입대 대기			2 (0.0)		
결혼 준비	1 (0.1)		4 (0.0)		4 (0.6)
쉬었음	30 (2.9)	6 (5.6)	9 (0.1)		49 (7.7)
기타	24 (2.3)	2 (1.9)	13 (0.1)	2 (0.3)	14 (2.2)
전 체	1,027 (100.0)	108 (100.0)	10,458 (100.0)	775 (100.0)	638 (100.0)

표 3.6. 2차 조사 당시 지난 1주간 한 일

유형	A1	A2	A3	A4	A5
지난 1주간 한 일					
일하였음	940 (91.5)		10,259 (98.1)		
일시휴직	5 (0.5)		63 (0.6)	17 (2.2)	1 (0.2)
구직활동	5 (0.5)	12 (11.1)	5 (0.0)	100 (12.9)	39 (6.1)
발령대기	1 (0.1)	2 (1.9)		13 (1.7)	12 (1.9)
육아	2 (0.2)	2 (1.9)	7 (0.1)	28 (3.6)	66 (10.3)
가사	1 (0.1)	3 (2.8)	1 (0.0)	29 (3.7)	49 (7.7)
대학 또는 대학원 통학	50 (4.9)	19 (17.6)	71 (0.7)	101 (13.0)	146 (22.9)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3 (0.3)	13 (12.0)		99 (12.8)	83 (13.0)
취업준비	14 (1.4)	37 (34.3)	7 (0.1)	187 (24.1)	158 (24.8)
진학준비	2 (0.2)	4 (3.7)	3 (0.0)	35 (4.5)	15 (2.4)
심신장애	1 (0.1)		9 (0.1)	6 (0.8)	2 (0.3)
군입대 대기	1 (0.1)			2 (0.3)	
결혼 준비		1 (0.9)	4 (0.0)	8 (1.0)	2 (0.3)
쉬었음		10 (9.3)	21 (0.2)	117 (15.1)	38 (6.0)
기타	2 (0.2)	5 (4.6)	8 (0.1)	33 (4.3)	27 (4.2)
전 체	1,027 (100.0)	108 (100.0)	10,458 (100.0)	775 (100.0)	638 (100.0)

표 3.6은 졸업 후 32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2차 조사 당시에 지난 1주일간 무엇을 하였는지를 파악한 결과인데, A2는 조사 당시 이직을 위해 취업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A5는 육아(10.3%) 및 가사(7.7%) 등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구직을 단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4는 구직활동중이라는 응답이 12.9%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은 일자리 경험이 두 번 있었던 대졸자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B1은 졸업 후 2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첫 일자리를 구한 후 1년 이내에 이직을 하여, 3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B2는 졸업 후 2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첫 일자리를 구했으나, 1년 이내에 이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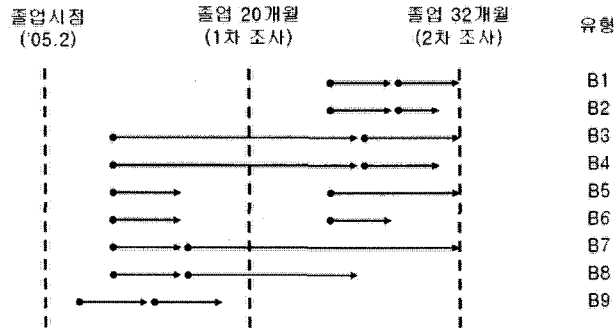


그림 3.3. 일자리 2회 경험자의 유형 분류

1회 경험하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으나 다시 그만두어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B3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 경과 시점까지 계속 다녔으나, 그 후 1회 이직을 통해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그 일자리에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우이고, B4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다녔으나, 그 후 1회 이직을 경험하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으나 다시 그만두어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B5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어서 1차 조사 당시 일자리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서 그 일자리에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우이고, B6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어서 1차 조사 당시 일자리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으나 다시 그만두어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B7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었다가, 1차 조사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서 그 일자리에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우이고, B8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었다가, 1차 조사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으나, 졸업 후 32개월이 되기 전에 일자리를 그만 두어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B9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들어간 첫 일자리를 졸업 후 20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었다가, 1차 조사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으나 다시 그만두었고, 그 이후에 1년 이상 일자리가 없는 경우이다.

B1, B3, B5, B7은 일자리 2회 경험자 중에서 현재 일자리 보유자, 그 외는 현재 일자리 미보유자인데, 그림 3.2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일부는 이직준비 상태이고, 일부는 구직을 단념한 상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3. 유형별 평균차이분석

앞에서 분류한 유형은 취업과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태도도 다를 것이다. 또한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직의도나 이직의사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자리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등의 근무환경도 다를 것이다. 표 3.7은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 1회 경험자의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고, 일자리 경험횟수가 증가하면서 월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5회 이상 경험자의 월평균임금은 일자리 4회 경험자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자리 3회 경험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ob shopping 과정을 통해 경력일치를 이루기 위해 이직을 하는 청년층이 결국 빈번한 일자리 변경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3.7에 나타내었는데, 동일한 문자로 할당된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7.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른 월평균임금 차이 분석

유형	인원(명)	평균	표준편차	F	Post. Hoc
1회 경험자	12,833	212.38	268.73	36.128***	a
2회 경험자	5,897	184.33	259.19		a b
3회 경험자	2,218	160.44	84.45		a b
4회 경험자	651	145.83	82.26		b
5회 이상 경험자	232	162.26	155.05		b
합계	21,831	197.01	249.37		

***: $p < 0.001$

표 3.8. 일자리 1회 경험자의 유형별 월평균임금 차이 분석

유형	인원(명)	평균 ¹⁾	표준편차	F	Post. Hoc
A1	999	178.11	88.44	43.639***	b
A2	106	91.15	54.65		a
A3	10,369	226.60	294.74		c
A4	744	149.35	69.01		a b
A5	615	125.36	56.04		a b

***: $p < 0.001$

1):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경우의 대졸자는 그들이 일한 마지막 일자리의 월평균임금임

표 3.8은 이직경험이 없는 일자리 1회 경험자를 그림 3.2에서 분류한 유형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A3 유형이 가장 많은 약 233만원의 월평균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3 유형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하는 대신 창업을 통해 고용주나 자영자가 되어서 임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기 때문이며, 또는 취업 후 상용직으로 취업했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아서 다른 종사상지위 보다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결국 A3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높은 수준이어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선택한 대졸자들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A1은 노동시장 진입 경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경력에 따른 임금효과가 아직 나타나기 이전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표 3.9는 일자리 2회 경험자를 그림 3.2에서 분류한 유형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B2, B4, B6, B8 등 현재 일자리가 없는 대졸자의 월평균임금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 대졸자(B1, B3, B5, B7) 등에 비해 낮았다.

졸업 후 일자리가 있었으나 오랫동안 일자리가 없었다면, 현재 일자리가 있는 대졸자의 월평균임금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이나 시차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감안한다면 일부 차이는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의 월평균임금이 이직 경험자의 월평균임금보다 높다는 것이다. 물론 근속기간으로 인한 임금차이도 있을 수 있으며,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이직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4. 결론

기업체에서 신규 인력의 업무적응을 위해 상당한 인적·물적 투입을 하고 있다. 신규인력이 업무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투입되는 금액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투입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구직자 입장에서 대졸자들은 첫 일자리를 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인자와 구직자 입장에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수개월의 기간

표 3.9. 일자리 2회 경험자의 유형별 월평균임금 차이 분석

	인원(명)	평균	표준편차	F
B1	72	160.34	87.84	7.894***
B2	11	78.85	41.37	
B3	1,758	196.55	301.02	
B4	75	125.09	81.33	
B5	668	156.17	119.74	
B6	109	96.85	52.38	
B7	2,857	196.47	277.75	
B8	347	125.34	75.04	

***: $p < 0.001$

과 상당한 물적소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발적 이직이나 비자발적 이직을 통해 일자리를 옮기는 것은 기업체 입장에서도 구직자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이다. 대졸자들의 이직경험횟수가 증가할수록 최종 일자리의 임금 감소 효과가 있으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최종 일자리의 임금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빈번한 이직경험이 경력일치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수는 있지만 대졸자들이 초기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일자리 탐색과정이 본인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킬수는 없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대졸자들이 이직을 통해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그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아야 함과 더불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경력개발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 자리를 옮기는 사이의 이직기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재직중 이직준비를 통해 일자리를 옮겼다면, 이직기간이 짧을 것이고, 이는 결국 임금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직 기간이 길면, 이는 본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이직과정이 긴 대졸자 중의 일부는 대학 및 대학원 진학 또는 시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우, 이전 일자리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일자리 근무를 통해 쌓은 경력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취업준비를 통한 경력 형성보다 고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적인 접근에서는 여전히 이직 기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향후에는 일자리 2회 이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직 기간에 따른 고용의 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자리 경험횟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나누었지만, 일자리 경험횟수가 1회 내지 2회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석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향후에는 3회 이상인 경우의 유형에 대해서도 추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졸자들이 졸업후 경험하게 되는 일자리 경험횟수, 첫 일자리와 최종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일치 여부 등 노동시장 정착과정과 관련된 변수들을 찾아내고, 첫 일자리에 입직소요기간과 일자리 근속기간 등 현재 일자리에 진입하는 과정을 담은 변수를 선택한 후, 이런 설명변인과 배경 변인이 최종 일자리의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모형 추정을 시도해 볼 예정이다.

참고문헌

-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 1-18.
 천영민, 박상현, 정승철, 윤정혜, 이성재 (2008a). <2006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천영민, 윤정혜, 이성재 (2008b). 대졸자의 직업이동 실태분석 연구, <고용과 직업연구>, 2, 87-111.

- 천영민, 정승철, 윤정혜, 이성재, 이주현, 심재훈, 서지연 (2009). <2007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Light, A. and McGarry, K. (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 276-286.
- Neal, D. (1999).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237-261.

Classification and Comparison of the Type of Graduates Job Mobility

Young-Min Chun¹ · Seong-Jae Lee²

¹Career Education TF Team,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²Center for Employment Survey and Analysis,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Received December 2009; accepted February 2010)

Abstract

In this paper it is investigated how the number of work experiences is distributed among college graduates who have ever entered the labor market and built up career by turnover. To do so, we classified the type of work experience and, moreover, conduct ANOVA to explore wage differentials caused by the number of work experience and by the type of work experience, using the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from 2006 to 2007.

Keywords: Monthly wage, work experience, work mobility.

¹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Career Education TF Team,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77-11, Mullae-dong 3-ga, Yeongdeungpo-gu, Seoul 150-093, Korea. E-mail: zzari90@keis.or.kr